

광주 하가다 캠프 소감문  
청년 전수진

5박 6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가다 캠프를 다녀왔습니다.  
출발 하기 전, 저의 감정은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.  
말씀 읊조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 
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.  
하지만 입술로 말씀을 읊조리며 지쳐있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시심을 느꼈고  
기도문이 막혔던 나에게, 희망을 품어주신 것 같아 너무 기뻐했습니다.  
조별 활동으로 우린 주님 품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 
또한 장면 예배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과 수치심을 조금이나마  
느낄 수 있었습니다.  
단 한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던 것 같습니다.  
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 
항상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분의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.  
찬양 할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서 있는 나의 거짓된 모습이 보였습니다.  
좀 더 자신감을 갖고 다윗처럼 춤을 추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.  
캠프를 다녀오게 되면서 말씀을 안다는 것, 눈으로 읽는다는 것, 통독하는 것이  
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.  
그리고 우리 광명교회 식구인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.  
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떨지않고 당차게 소감문 발표를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  
웠습니다.  
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늘 그 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.  
진실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.  
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.  
지쳤지만 행복했던, 소중한 5박 6일이었습니다.